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지역언론 톺아보기

주소 부산시 수영구 광남로88 301호
 전화 051-802-0916
 홈페이지 www.bssimnet.or.kr
 이메일 buun1@hanmail.net

• 문서 번호	지역언론톺아보기2021-007
• 수 신	각 언론사 보도국, 편집국
• 발 신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 제 목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2월 첫째 주 보도
• 모니터기간	2021년 2월 1일~2021년 2월 5일
• 날 짜	2021년 2월 8일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2월 첫째 주 보도

<부산일보> 2차 여론조사…가상 양자대결 지지율 강조
 특정 예비후보 지나치게 주목받는 효과 ‘위험’

<부산일보> 2차 여론조사

가장 강조한 건 가상 양자대결 수치

2월 3일 부산일보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 2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산일보>와 <YTN>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1월 31일~2월 1일 이틀 동안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부산일보

1949년 9월 10일 창간 전화 051-461-4114 제23416호 1판 busan.com 2021년 2월 3일 수요일 (윤력 12월 22일)

김영춘 28.0 vs 박형준 42.5... 김영춘 32.2 vs 이연주 27.8

본보·YTN, 부산시장 2차 여론조사

여야 후보 적합도선 박형준 1위
 민주당 후보 적합도 김영춘 독주
 국민의힘 38.6%·민주당 25.9%
 문 대통령 국정 '잘 못해' 61.4%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실시한 여야 유력 정치 가상 양자대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박형준 예비후보가 42.5%의 지지를 얻어 28.0%를 기록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예비후보를 크게 앞섰다. 반면 민주당 김 후보는 국민의힘 이연주 후보와의 가상 상대결에서는 32.2%로, 오차범위 내에서 이 후보(27.8%)에 우세를 보였다. 여야 전체 지지율에 대한 보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박 후보가 28.0%로 1위를 달렸고, 김영춘 15.3%, 이연주 11.2%, 변성완 후보 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사 4·5·6면
 <부산일보>·YTN은 지난해 12월 22~23일 1차 조사에 이어 1월 31일~2월 1일 18세 이상 부산시민 1016명을 대상으로 2차 여론조사를 밝혔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실시한 이번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중립성여론조사위원회 협조)에서 박 후보는 1차 조사 때처럼 1경

부산지정 보선 후보 가상대결 (단위%)

2%로 더 후보들을 압도했고, 이어 이연주 14.2%, 박성훈 6.7%, 이진박 5.5%, 박민석 4.7%, 정성하 후보 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8.6%, 민주당이 25.9%로 양당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12.7%포인트였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부산-울산-경남(PK)의 정당 지지율이 앞자락 뒤처박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부산일보>·YTN의 1·2차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의 우위 구도가 변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 역시 '잘 못해'였다. 부정 응답이 61.4%로 '잘하고 있다'는 긍정 응답 35.3%를 압도했고, 이번 부산시장 보선 구도에 대해서도 '정부여당 심판'이 53.6%로,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37.4%)을 크게 앞섰다.

차기 부산시장의 경쟁 지역별연은 △일자리 창출 32.1% △부동산 시장 안정화 20.4% △가치산업 육성 19.0% △동·서부산 균형발전 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덕신공항 추진이 1위였던 1차 조사와는 크게 다른 결과였는데, 최근 가덕신공항 특별법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연광출 기자 jch@busan.com

부산지정 후보 직격 인터뷰 6면

△ 부산일보, 2월3일, 1면

1면에 여야 유력 주자 가상 양자대결 결과 <김영춘 28.0 vs 박형준 42.5...김영춘 32.2 vs 이연주 27.8>(전창훈 기자)를 게재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예비후보가 42.5%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예비후보(28.0%)를 크게 앞섰고, 국민의힘 이연주 후보와 김영춘 후보 가상 맞대결에서는 김영춘 후보가 32.2%로 이연주 후보(27.8%)보다 오차범위 내 우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준 후보는 양자대결뿐만 아니라 전체 주자 적합도, 국민의힘 내 적합도에서도 모두 오차범위 밖 1위로 나타나 “여권의 ‘가덕신공항 드라이브’에도 박후보 독주체제가 흔들리지 않은 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부산일보 여론조사보도는 여론조사 결과 중에서도 ‘가상 양자대결’ 결과를 1면 머릿기사로 실어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경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가상대결 결과 수치를 강조하는 것은 자칫 각 정당에 특정 예비후보를 시장후보로 내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김영춘 후보(32.2%)와 이연주 후보(27.8%) 가상대결 결과는 오차범위 내 격차인 4.4%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픽에서 김영춘 후보에 ‘WIN’으로 표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은 박형준 후보가 본선 대결에 나서야지만 보궐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이는 한국기자협회의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의 아래의 조항을 모두 어긴 보도이기도 합니다.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 ① 미디어는 후보자나 정당의 지지율 또는 선호도는 신뢰구간에 따른 표본오차를 감안해 보도해야 한다.
- ②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
- ③ 위 경우 “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 ④ 위 경우 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

또한 후보 적합도 결과를 전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내 시장후보 적합도는 김영춘 25.6%, 변성완 10.0%...김 후보의 우위가 그대로 유지됐다. 국민의힘의 경우 박 후보가 34.2%로 타 후보들을 압도했고, 이어 이연주 14.2%...순으로 나타났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변성완 후보의 적합도 차이 15.6%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와 이연주 후보의 차이 20.2%는 4.6%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형준 후보만이 마치 아주 큰 수치로 이연주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압도했고’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어떤 후보가 많은 지지를 받고 당선 가능성이 있는가는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때문에 선거 여론조사 실시 후 발표되는 보도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유권자들은 기사가 제시하는 순위나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억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발표될 여론조사 결과 보도는 지지율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왜 그러한 지지율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여론의 변화 요인들에 초점을 맞춘 보도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캠프 ‘용광로 캠프’, ‘매머드급 캠프’ 표현
 특정 후보 세 과시에 지역언론이 힘 보태는 꼴..

박형준, 정치 성향·출신 다양한 ‘용광로 캠프’ 꾸렸다

‘내게 힘이 되는 선대위’ 공개 선대위원장에 박한일 전 총장 실용노선 추구 인물 다수 포진 구성원들 ‘화학적 결합’ 과제

‘용광로 캠프’

부산시장 보궐선거 유력 후보인 박형준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선거대책위를 부르는 이름이다.

박 후보 캠프에는 정치 성향이나 지역, 출신 분야와 상관없이 ‘박형준 노선’

에 동조하는 실용파 인사들이 총망라돼 있다. 박 후보는 지방분권부산운동본부 집행위원장과 국회의원,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 청와대 정부수석·홍보기획관, 국회 사무총장 등 요직을 거치면서 다양한 인맥을 구축해 놓은 상태다. 그 일부가 1일 공개됐다. 이날 발표된 ‘내게 힘이 되는 선대위’에는 진보·보수 진영 유력 인사의 핵심 멤버들이 포함돼 있다. 명예선대위원장으로 위촉된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부산 출신 원로 정치인 중 가장 적극적으로 박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 박한일 전 한국해양대 총장은 부산

시장 출마를 고심하다가 박 후보의 수차례 요청 끝에 선대위원장을 수락했다. 선대위 수석부위원장인 박현욱 전 수영구청장과 부위원장인 송숙희 전 사상구청장은 일찌감치 박 후보를 돕고 있다. 성희엽 전 부산시장 대외협력보좌관은 선대본부장을 맡게 됐다.

박 후보 캠프에는 다양한 출신이 대거 포진해 있다.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수원 씨는 정의화 국회의장 시절 정무수석을 지냈고, 미디어총괄본부장인 성현철 씨는 ‘서병수 사람’으로 꼽힌다. 부산시의원 출신인 전진영 대변인은 ‘안

철수계’로 분류된다.

박 후보와 ‘이명박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이지우·박광명 씨, 차기 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의 특보인 경윤호·이광석 씨,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의 특보를 맡았던 김훈식 씨, 김영삼 전 대통령의 평생 민주화 동지인 고김중순 고문의 아들인 김홍일 씨 등도 박 후보를 돕고 있다. ‘권철현 사단’으로 불렸던 이성권 전 의원과 김성현 전 보좌관, 정의화 전 의장의 측근인 전종민 전 국회의장 비서관도 박 후보 캠프에 가담해 있다. 사무처 당료의 ‘만행’인 황덕일 전 부산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지난달 31일 ‘청년 선거대책본부’ 출범식을 가졌다. 박형준 캠프 제공

당 사무처장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박 후보는 부산 보수 진영의 진정한 ‘화학적 결합’과 함께 향후 캠프 멤버들의 ‘저리다툼’에 신경 써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권기택 기자 ktk@

△ 부산일보, 2월2일, 4면

박형준 매머드 캠프... 온택트 조직 눈길

명예선대위원장에 정의화 초빙 박한일, 선대위장 맡아 지휘 비대면 선거운동 체계 마련



정의화

박한일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을 앞두고 ‘매머드급’ 캠프를 구성하며 세 몰이에 나섰다.

박 예비후보는 1일 지역에 명망 있는 인사와 참신한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운 ‘내게 힘이 되는 캠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온택트 선거운동에 집중할 수 있는 다양한 조직체계를 마련해 비대면 선거운동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는 명예선대위원장과 선대위원장 산하에 총괄 선대본부와 두고, 온라인상황실과 조직 상황실을 따로 설치했다. 특히 온택트 선거운동을 강화하기 위해 미디어 총괄본부, 온택트 조직·직능 총괄본부, 온택트 특보단, 온택트 정책특위를 둔 것이 눈에 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명예 선대위원장에 이름을 올렸고, 보궐선거 출마설이 나돌았던 박한일 전 한국해양대 총장이

선대위원장을 맡아 캠프를 진두지휘한다. 조한제 전 KBS 부산방송총국장과 이수원 전 부산진구 당협위원장이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고, 미디어총괄본부장에 성현철 전 국제신문 편집국장, 선대본부장에 성희엽 전 부산시장 대외협력보좌관이 각각 임명됐다. 박현욱 전 수영구청장과 송숙희 전 사상구청장은 각각 선대위 수석 부위원장 겸 지역직능 총괄본부장과 선대위 부위원장 겸 여성총괄본부장에 임명됐다. 또 청년선대본부와 정책교수단의 인선도 마무리됐다.

이같은 캠프 구성을 놓고 박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을 넘어 ‘본선’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예비후보 측은 “당내 경선 통과가 최우선 과제다. 본선에 진출하면 당차원의 선대위가 다시 꾸려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 국제신문, 2월2일, 5면

2월 2일자 부산일보는 4면(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기획면)에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캠프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형준, 정치 성향·출신 다양한 ‘용광로 캠프’ 꾸렸다>(권기택 기자)에서 ‘박형준 노선’에 동조하는 실용파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음을 전하고, 그 인사들의 면면을 소개했습니다. 같은 날 국제신문도 박형준 후보 캠프 구성에 대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5면(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기획면) <박형준 매머드 캠프 … 온택트 조직 눈길>(이병욱 기자)에서 ‘온택트 선거운동’강화위한 각종 체계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부산 지역의 명망있는 인사와 참신한 전문가로 캠프를 구성한 것에 대해 ‘매머드급 캠프’라며 선거 ‘본선’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두 기사 모두 박형준 후보 선거 캠프를 ‘용광로 캠프’, ‘매머드급 캠프’라 별칭을 붙이고 캠프 구성원을 자세히 소개하여, 특정 후보 캠프 세 과시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